

통영적십자병원, 2021년 클린병원으로 시민의 건강 책임지겠다

✎ 전공식 기자 | ☎ 승인 2021.01.11 09:52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병원장 조영철)이 지금까지 확진자 방문이 전혀 없는 클린병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개원 80년의 통영적십자병원은 2013년 노후한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복지부 지원으로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는 한편 우수한 의료진과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자랑하며 시민들과 더 가까워졌다.

또한 지난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 지역의료 강화대책 발표에 따라 신축대상에 포함된 통영적십자병원은 그동안 시설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2025년 신축완공(예정)으로 응급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시설을 갖추게 돼 상대적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통영시의 보건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명실상부한 고성·거제를 아우르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적십자병원은 현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동일한 기종인 MRI, 입체촬영이 가능한 128채널 CT, 영남 권역 최초로 도입한 3D심장초음파, 인체공학적인 지멘스 유방촬영기, 경동맥혈관초음파, 뇌혈관측정 초음파, 골밀도측정기, 최신 내시경(소화기내시경학회 기준에 따른 세척)등을 보유하고 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해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공공의료사업으로 약 8억 원의 사업비로 적십자 인도주의 이념을 실천해 오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통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일에 있을 수 있는 확진자 발생에도 전 의료진이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다.

통영적십자병원 조영철 원장은 "올 한해도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없는 클린병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며 "2021년 신축년,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한다"라는 새해 인사말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사랑과 봉사에 앞장서는 공공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식 기자 6444082@hanmail.net

저작권자 © 한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